

**망막병증이
제 1형 당뇨병의 발생 초기에 흔해**

미국 남플로리다 대학의 당뇨센터에 있는 John I. Malone 박사팀은 제 1형 당뇨병 환자들은 진단 받은 지 1년 이후 시작하는 망막변화에 대해 정기적으로 선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망막병증은 당뇨병 진단 3~5년 이전에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믿음에서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인 당뇨병 진단 3~5년 후에 첫 번째 안구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Malone 박사팀은 선별검사를 받고 제 1형 당뇨병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미만 된 1613명의 환자들을 평가에서 그들의 추천사항을 기초로 하여 시행하였고 당뇨 조절과 합병증에 관한 임상시험 (DCCT)을 위해 추적관찰을 시행하였다.

의학잡지 'Diabetes Care'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연구 대상자들의 54.2%는 기저로 시행한 안저사진 또는 촬영상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67.1%는 당뇨 진단 5년 이전에 망막병증이 발생하였다.

Malone 박사는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자연경과의 제 1형 당뇨병 환자에서 미세혈관 병변이 매우 일찍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으로 동공확장 후 안검사는 제 1형 당뇨병 진단 첫 해에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 연구결과는 조기 망막병변을 갖고 있는 제 1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합병증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제시하였다. 망막병증을 조기에 찾아낼 경우 많은 주의를 요하는 고위험군을 찾아내 적극적인 치료로써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보고서에서 Malone 박사팀은 "매년 동공확장 후 안검사와 가능하면 망막 혈관촬영이 제 1형 당뇨병의 진단 시점부터 이행되는 치료의 표준이 되어야 하며 이는 3~5년 동안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급성 관상동맥 중후군으로 인한 사망률이
당뇨병 환자에서는 두배**

약 16,000 명의 환자들을 포함한 두 개의 대규모 임상시험의 자료분석에 의하면 불안정성 협심증과 당뇨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은 당뇨병이 없는 비슷한 환자들에 비해 사망률이 두 배 이상이라고 한다. Duke 임상연구협회의 Darren K. McGuire 박사는 임상시험에서 약 3,100 명의 당뇨병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사망률이 당뇨병이 없는 환자들에 비해 훨씬 높다고 밝혔다.

주요 심장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은 당뇨병 환자에서는 11.4%였고 당뇨병이 없는 환자에서는 9%였다. 임상시험에서 1년간의 추적관찰 후에 당뇨병이 없는 환자들은 3.5%가 사망한 반면 당뇨병 환자들은 6%가 사망하였다.

McGuire 박사는 미국 심장협회 연례학회에서 "당뇨병은 모든 심혈관계 부작용에 대해 발생위험을 증가시켰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메트로포민처럼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키는 치료에 비해 인슐린 주사와 설폰와 같이 인슐린을 제공하는 치료를 하였을 경우 사망률이 2.6배 더 증가하였다. 90일이 지난 후 인슐린을 제공하는 치료를 받은 당뇨병 환자들의 12%는 주요 심혈관계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나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키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5%에서만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혈당을 낮추는 것과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위험 사이에는 관련이 없는 것 같으며 여전히 부족하지만 최대한 이용가능한 증거에 기초한다면 지금이 당뇨병에 대한 치료를 변경해야 할 시기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Duke 임상연구협회의 연구자들은 “증가된 혈당은 심혈관계 질환에서 원인인자라기 보다는 표식자인 것 같다. 고인슐린혈증과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병 환자들에서 사망에 대한 기저의 위험인자일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유행성 질병 경향을 보이는 당뇨병과 비만

지난 1999년 미국에서 발병한 당뇨병이 6%의 증가 추세를 보임으로써 유행성 질병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연구는 미국 질병방제·예방센터의 과학자들이 수행했으며 연구진이 분석한 통계 자료는 의학 잡지 'Diabetes Care'를 통해 소개되었다.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뇨병이 유행성 질병의 경향을 보이는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비만이 크게 증가하는데 있다고 한다. 지난 1991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의 비만 환자들은 무려 57%까지 증가했는데 이와 같은 큰 증가폭이 당뇨병 발병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만의 증가는 사람들이 적절한 육체적 활동이나 음식 조절을 하지 않는데 기인한다는 것이 질병방제·예방센터의 병역학자인 알리 모크다(Ali Mokdad)의 설명이다.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998년 미국의 성인 당뇨병 환자의 비율은 약 6.5%였는데 이 수치가 1999년에는 6.9%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비만 환자의 비율은 지난 1991년 12%였던 것이 1999년에는 거의 20%까지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30세에서 39세 사이의 성인들의 경우에는 약 70%의 급격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질병방제·예방센터의 소장을 맡고 있는 제프리 코플란은 이와 같은 경향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경우에는 미국의 보건비용이 감당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발표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당뇨병 환자들의 수는 최소 1,600만 명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에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에는 오는 2025년 당뇨병 환자들의 수가 2,2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매년 180,000 명의 사람들이 당뇨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미국 질병방제·예방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999년 당뇨병 발병의 증가는 특히 흑인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흑인들의 경우 겨우 1년만에 무려 10% 이상의 증가를 보였기 때문. 그러나 라틴계 미국인을 비롯한 다른 인종들의 경우에도 1999년에 특히 높은 당뇨병 증가 경향을 보였다. 특히 높은 증가율을 보인 30대 성인들의 경우에는 1998년과 1999년 사이에만 감소 경향을 보였을 뿐 1990년부터 1998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무려 70%의 증가 경향을 보여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뇨병이란 질병이 장·노년층에서 많이 발병하는 질병이라는 과거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젊은 층에서 당뇨병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미국의 추세가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를 유발할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